

추상화 일렁… 스프레이로 물감 흘뿌린 화폭

한국서 개인전 美 스텔링 루비 내한

■ 문명과 등진 채 자연 속 전통적인 삶을 추구하는 애미시마을과 이웃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시골 출신인 작가는 주변의 일상용품을 작업의 소재로 활용했다. 해진 옷을 짜깁기한 퀼트 등 농민들이 전통 수공예에 몰두하듯, 그는 작업실 바닥에 깔았던 부직포, 옷감, 골판지 등을 화판에 덧붙이고 물감을 흘뿌려 영적 이미지를 담아냈다.

그러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(LA)로 이주한

뒤로 새로운 작업이 시작됐다. 우범지역 속 작업실을 드나들 때마다 건물 벽면에 갭단들이 영토 구역을 표시하듯 칠한 낙서가 다음 날 아침이면 말끔히 지워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작품 속으로 얼룩진 벽의 이미지가 들어섰다. 회화를 전공했으나 한동안 콜라주와 도자공법의 조각을 주로 했던 그지만 LA생활 이후 환경이 바뀌면서 회화 작업을 재개한 것. 봇 대신 스프레이로 물감을 수차례 칠하고 뿐만 화면은 다양한 색면이 일렁이는 추상화 같은 이미지를 보여준다.

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5월 10일까지 개인전을 여는 스텔링 루비(41·사진)는 작가 특유의 스프레이 회화 및 도자기, 브론즈 조각을 선보인다. 작가는 바닥보호용 넬판지 위의 물감 자국을 화판에 옮기고, 금이 가고 부서진 도자 조각들을 조합한 도자 시리즈 및 폐기된 가마 연통이며 병 나무 조각 등 작업실 현장을 재현한 브론즈 조각 등 '리사이클(재활용)'을 집요하게 탐구해 왔다.

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, 캘리포니아 아트센터 컬리지 앤 디자인 출신인 작가는 다양한 실험을 통



해 전통적인 미니멀리즘과는 대립되는 다층적인 이미지가 중첩된 작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. 작가는 스프레이 회화에 대해 "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추상화 같지만 일종의 풍경화"라며 인상과 화가 모네 작품을 염두에 둔 색채라고 소개한다. 전통적인 천조각의 퀼트 작업을 청바지 소재인 데님 작업으로 연결시킨 작가. 그는 자신이 만든 얼룩덜룩한 진짜션 차림으로 서울전시장을 찾았다.

신세미 기자